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mong Korean Elderl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최혜경*

박사과정 백지은

박사과정 서선영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Choi, Hye-Kyoung

Ph. D. Candidates : Paik, Jee-Eun

Ph. D. Candidates : Seo, Sun-Young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Korean elderly perceive elements of successful aging, and to explore the meanings of a successful life in the contexts of the life experiences of the Korean elderly. From life-contextual perspectives, this study explored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successful aging by gender and by class (economic status). Forty elderly persons aged 65 and ov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on the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 their own life context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key theme of successful aging by class (economic status), because cultural and economic contexts influenced the elderly person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This study will help researchers, educators, and practitioners to understand successful aging experience as well as establish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among Koreans.

▲주요어(Key Words) :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지각(perceptions), 경제적 계층(economic class), 맥락(context),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

1. 도 입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에서 노화(aging)에 관해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노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노후의 삶에 대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인 노화, 삶의 질, 안녕, 복지, 생활수준,

인생만족도, 행복과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어졌으며, 주로 '성공적인 노화'라는 용어로 연구되어져 왔다.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세 가지 주요한 행동 특성 능력으로 기술하고,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와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그리고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였고, 이러한 세 가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위계적인 순서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즉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정신적 신체적 기능 유지가 더 쉽고,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기능 유지는 차례로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인생후기 도전에 대한 적

* 주 저 자 : 최혜경 (E-mail : chk@ewha.ac.kr)

응과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

Baltes(1993)는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으로 수명(length of life), 신체적 건강(biological health),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 인지적 효능감(cognitive efficacy),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social competence and productivity), 개인적인 통제(personal control),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제시하며, 이러한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SOC)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해서(Selection),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적정화하고(Optimization),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족함을 보상한다(Compensation)는 이론으로, 여러 면에서 감소와 쇠퇴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Crosnoe와 Elder(2002)는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에 걸친 요인들을 확인하는 전체론적인 접근을 해야만 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가족 참여, 직업 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 중심적인 남자는 노후에 적응적이었으며, 직업 중심적인 남자는 노후에 덜 적응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측면 중에서 가족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hou 등(2002)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인지적인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를 포함한 4차원으로 정의하고, 연령, 성, 교육정도, 가까운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 빈도, 재정적인 긴장, 만성적 질병의 수, 자기가 평가한 건강, 청력 손실, 생활 만족도가 4가지 성공적인 지표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Mitchell(2002)은 성공적 노화를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들의 통합적인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기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신체, 정신 건강차원,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의 차원, 가족관계 차원, 직업, 은퇴생활 및 사회 참여도 차원의 4가지 다각적인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김태현, 1998), 홍현방(2001)은 성공적인 노화란 삶의 영역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정서, 신체와 인지 기능에 대한 지각, 과거와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노화는 다차원적, 즉 심리적인 발달, 사회적인 측면,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으로 구성된다고 밝히며, 통합적인 시각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화가 노후에 달성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발달 과정이며, 어느 하나의 측면이 강조되기보다 여러 영역간의 균형과 상호보완을 통해서 노인 자신이 어떻게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다고 정의한다.

지금까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기존의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주어지는 차원들을 파악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바탕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표방하고 있

는 주관성을 간과하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주로 양식화 된 도구에 의해 인간의 성공적 노화를 조명해 왔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의 의미를 너무 단순화하는 양적인 연구방법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노인 개인의 상황과 인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삶의 맥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노인의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들은 서구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와는 다른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서구 노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노화 개념과 그에 따른 서비스를 한국 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 노인의 실제 생활세계와 밀접한 노화경험의 실체와 욕구를 노인들의 언어로 파악하려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즉 통합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생활세계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인간 과학 철학에 근거한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신경립, 1998)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심리적으로 반영된 경험에 관한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최근 주관적인 지각을 탐구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 박경관과 이영숙(2002)은 남녀 대학생과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관적인 질문을 통해 많이 언급되었던 개념을 기준으로 빈도를 측정하여 구성요소별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은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의 7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장 기본적 요인은 자율이며 그 중 건강 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자율 중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지각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었다.

또한 강인(2003)은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 중년기, 청년기 여성 각자 35명씩 105명을 대상으로 “귀하께서는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비형식적인 자유응답식 질문을 사용하여 내용빈도분석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지각의 구성요인은 신체적 건강, 개인 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 지향, 경제적 안정의 6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지향 요소의 발견은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공적 노화에 관하여 보다 더 가족관계 중심적인 지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개인 자신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자기 평가는 노년기 여성의 62.9%가 자신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중년기 여성은 42.9%, 청년기 여성은

31.4%가 자신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노인에 대한 일반적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노인들은 보다 더 자신을 스스로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도 한계점이 있다. 먼저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고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만을 언급했을 뿐, 그 요소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단편적인 구성요소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연계성을 가지고 노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들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개인이 놓여있는 맥락에 따라 경험하는 바와 인식하는 것들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삶의 맥락적 관점에서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성과 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들이 체험하는 성공적인 노화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서술하여 그 체험의 본질을 추구한다. 즉 노인의 노년기 삶의 체험을 통해 한국 노인이 경험하는 노화의 의미와 본질을 과거, 현재, 미래와의 연속성으로 삶의 맥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할당표본표집을 통해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계층의 경우 한국노인의 평균 월소득*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노인을 상층, 100~200만원 수준의 노인을 중층,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노인을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총 40명으로 남성노인은 15명, 여성노인은 25명이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가 10명, 70대가 21명, 80대가 7명, 90대도 2명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교육수준은 국졸이하가 11명, 중졸이 4명, 고졸이 10명, 전문대졸 이상은 15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18명,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21명, 이혼한 사람이 1명이었고, 경제적인 수준은 상층이 16명, 중산층이 12명, 하층이 11명이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의 질적 연구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

기 위해 연구주제인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서로 반추해 보았으며, 자료 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문헌고찰을 억제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pre-test를 실시하고 연구자들이 모여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질문과 반 구조화된 질문을 정하는 등 연구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Morse(1997)의 ‘동의과정’을 이용하여, 처음에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담과정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아 이를 녹음하였다.

한국노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선정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복지관, 경로당, 유료 양로원의 협조를 받아 노인들을 임의 표출한 후 먼저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40명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였으며, 주로 연구 참여자의 자택이나 주변 공원, 경로당, 복지관, 실버타운 등에서 실시되었다. 1차면담은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렸으며, 응답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2차면담은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만든 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0)

변인	내용	빈도
성별	남	15
	여	25
연령	65세 이상-70세 이하	10
	70대	21
	80대	7
	90대	2
학력	국졸 이하	11
	중졸	4
	고졸	10
	전문대졸 이상	15
경제수준	상	16
	중	12
	하	11
결혼상태	유배우자	18
	사별	21
	이혼	1

* 통계청(2000). 노인가구(60세 이상) / 가계수지항목별 기본항목 (60세 이상 노인가구 월 평균소득 112만원).

2. 자료분석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인들이 살아온 과정과 경험을 질문하고 그러한 과정과 경험 속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들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지각하는 바를 자신의 삶의 역정과 연계하여 이야기 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내용분석은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녹취내용을 연구자들이 각자 분석하여 여러 번의 토론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성공적 노화에 대해 성과 계층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와 Guba, (1989)가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

sistency,) 사실적 가치(true value), 응용성(applicability)에 근거하였다. 문장을 명확히 하려고 반복해서 읽음으로서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는 서술과 표현의 정교함을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상을 관찰할 때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된 결과를 서술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읽힘으로써 자신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 목록

사례	성별(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	수입원	사례	성별(연령)	교육수준	본인직업	수입원
1	남(71)	대학원이상	전 국회의원	본인 (집세, 이자소득)	21	여(74)	고졸	주부	본인(이자소득)
2	남(80)	대졸	전 의사 (병원장)	본인 (이자소득)	22	여(73)	대졸	전 교사, 일어통역사	본인(이자소득)
3	남(69)	대졸	현 회사간부	본인 (월급, 이자소득)	23	여(69)	고졸	현 식당경영	본인(월급, 이자소득)
4	남(82)	대졸	전 은행지점장	본인 (집세, 이자소득)	24	여(78)	고졸	주부	배우자(이자소득), 자녀용돈
5	남(75)	대졸	전 교사/ 현 시인	본인(이자소득)	25	여(72)	대졸	전 교사	본인(연금)
6	남(68)	대졸	전 교사	본인(연금)	26	여(80)	중졸	주부	자녀보조
7	남(75)	대졸	전 회사원	본인(연금), 자녀보조	27	여(76)	고졸	주부	배우자(이자소득), 자녀용돈
8	남(71)	대졸	전 교수/ 현 시간강사	본인 (연금, 이자소득)	28	여(80)	중졸	주부	자녀보조
9	남(81)	고졸	전 회사원	본인 (연금, 이자소득)	29	여(69)	국졸	주부	국가보조금
10	남(71)	대학원이상	전 공무원/ 현 상담가	본인 (연금, 이자소득)	30	여(76)	국졸	전 자영업	자녀보조
11	남(80)	고졸	전 회사원	자녀보조	31	여(70)	국졸	주부	자녀보조
12	남(86)	대졸	전 건축사무소 운영	본인(이자소득)	32	여(82)	무학	주부	국가보조금
13	남(72)	국졸	전 소매상 운영	국가보조금	33	여(94)	무학	주부	국가보조금
14	남(76)	국졸	전 일용직	국가보조금	34	여(65)	고졸	전 회사원	국가보조금
15	남(75)	국졸	전 회사원	자녀보조	35	여(78)	국졸	전 청소부	국가보조금
16	여(71)	대졸	전 교사	배우자(이자소득)	36	여(65)	고졸	전 회사원	배우자, 자녀보조
17	여(78)	고졸	주부	배우자 (연금, 이자소득)	37	여(81)	중졸	주부	자녀보조
18	여(69)	대졸	주부	배우자(이자소득)	38	여(91)	무학	전 일용직	국가보조금
19	여(65)	대졸	주부/ 전 공무원	배우자 (월급, 이자소득)	39	여(69)	중졸	주부	배우자, 자녀용돈
20	여(78)	고졸	주부	배우자 (연금, 이자소득)	40	여(83)	국졸	전 일용직	자녀보조

III. 연구결과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어 성과 계층에 따른 의미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들이 갖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차이에 있어 성은 큰 의미를 갖지 않았으나, 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공적 노화를 지각하는 차원이나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여성노인들의 경우 삶의 많은 부분이 남편의 삶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층에 따른 차이는 한국 노인들이 처해있는 삶의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노인들의 삶이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영하듯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도 노인이 놓여진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조건은 노년기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활동 등의 경험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지각하는 바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층, 중층, 하층 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성공적 노화를 노인의 전생애에 발달 차원에서 보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이 노인의 현재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중용으로서의 삶

상층 노인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란 ‘어딜 가도 땀땀하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욕심을 버린다’,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낸다’, ‘자식이 잘 컸다’로 언급되어지고 있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으며 지나침도 못미침도 없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① 어딜 가도 땀땀하다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 과거에서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부끄럽지 않고 땀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에게 짐이 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층에게 있어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이 단지 자신의 내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적인 차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 또한 중요한 것이다.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피해라는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에게 욕 얻어먹거나 그런거 없고..건강하게 살다가는거..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사례 2>

“살아온 행적이 남한테 욕을 안 먹어야 해..어딜가도 땀땀해야 한다고.” <사례 1>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좋은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나쁜 생활하면 안 된다고..그러면 성공하는거지..” <사례 16>

“평범하게 산다는게 힘든데 평범하게 살면서...그 사람이 좋았더라는 말을 듣는게 좋은 것 같아요.” <사례 19>

“내가 잘 살았다는게 충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사례 17>

“모범되게 살아야지..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대우받고 살지..” <사례 19>

②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서 언제나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터뷰 결과 상층의 노인들은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짐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교류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상층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유지하거나 또는 오히려 성인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유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년기에도 타인이 인정해 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인간관계 좋은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요” <사례 19>

“평범하게 산다는게 힘든데 평범하게 살면서.....그 사람이 좋았더라는 말을 듣는게 좋은 것 같아요” <사례 19>

“건강해야 잘살 수 있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걸 잃는거야.” <사례 20>

“자기 건강하지 못하면 매사가 다 귀찮을 것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모든게 좋겠죠.” <사례 25>

“모범되게 살아야지..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대우받고 살지..자식들이나 주위사람들한테..필요한건..건강하고 돈이지..첫째는 건강이고 다름에는 돈이고..

돈이 있어야 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떳떳하고. 나 자신도 괴로움 안받고. 그러니까 노화대책을 잘하라고 그러는거지.” <사례 2>

“내 생활이 언제나 자식한테 부담안되는 생활을 해야돼. 내가 먹어야되고 자야되고 내가 틀니해야되고 내가 운동해야되고 나를 위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거지 그게 나를 위한거지만 그렇게 살아주면은 자식한테 무슨 폐다 뭐 잘못되게 살았다 이런건 없어.... 살다가 팔십에 가는 사람이 있고 90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거지 만은 사는 동안에는 자식한테 피해를 안끼쳐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용돈 타고 안타고의 문제가 아니야. 처신을 잘해야 된다.” <사례 5>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피해라는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에게 욕 얻어먹거나 그런거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는 거..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사례 3>

“먹고 살게 있어야 돼.. 자식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간에 하나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만큼의 재력이 있어야 해.. 또 가족들이 남들 사는만큼 살아야 해.. 어디가서 별시당하고 기죽어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사례 4>

“아무쪼록 늙으면 윤택한 것이 제일이다” <사례 5>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화 대책이 있어야지고서.. 자기가 노화에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해줘야겠다. 또 거기까지는 건강이 유지되야 목표달성하는데 심력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불화가 되고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없다” <사례 10>

“노화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해서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해.. 부모로서 더 이상 기대면 안 된다” <사례 1>

“옛날에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런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기대는데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사례 22>

③ 욕심을 버린다

현재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지금의 자신이 놓여있는 삶을 즐길 줄 알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 즉, 현재의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라고 언급하

고 있다. 상층의 경우 사회와 대인관계에서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으므로, 자신을 능동적,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중심적인 정서나 생물적, 이기적 욕구를 스스로 억제·조절하여 자신의 지금의 삶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즐겁게 사는거.. 그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아프지 않아야 하고. 내가 족들 모두 건강하고. 사는데 있어서 그리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쓸만큼 쓸 수 있고. 지금 부족한 거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성공한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16>

“즐거워야 해. 내가 늙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좋지 않고 그리고 추절한 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즐겁고 편하게 ” <사례 5>

“너무 과욕부린 사람은 노화가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늙어 갈수록 그 욕심이 생기는 걸 자제하는 삶이 노화를 아름답게 살아가는거 아닌가” <사례 23>

“지금 일이 있어야 되요 자기가 열심히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그래야 거기에 정력을 쏟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으로 발휘하라고 발휘가 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 이래야 만족할 꺼 아니에요?” <사례 25>

“욕심을 버리는 것..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뭐가 많아서 행복하게 아니거든..” <사례 2>

“마음을 편하게 갖는거.. 이것저것 걱정거리를 안고 살지 않고 긍정적이고 즐겁게 사는거..” <사례 17>

“죽을 때 자손들한테, 누구한테도 신세 안지고 건강한 상태에서 갈 수 있는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사례 1>

위의 사례들의 경우에서처럼 과욕을 버리고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며 즐거운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지금의 삶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활력 있는 노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④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낸다

상층에서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중 노후 삶에 대해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규칙적이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자기통

제와 개선을 통해 자기향상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노화계획을 잘 해야 한다.” <사례 3>

“젊어서부터 노후에 우리 마누라랑 할 일들을 생각했었지... 지금 같이 등산도 하고... 요기 조금만 가면 고아원이 있어... 거기에 한번씩 가서 뭐 해줄거 없나... 보람되지... 그런거를 젊어서부터 생각했었다고... 그런걸 해야지...” <사례 10>

“난 일을 할 때 나중에 자서전을 써야겠다. 뭐 거창하게 자서전까지는 아니지만... 그 때 하고싶었던 말들을 쓰는거지... 그리고... 늙어서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해... 그래서 지금 서예전을 준비하고 있어...” <사례 1>

“뭔가 할 일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늙는다잖아...” <사례 23>

“나 자신을 ... 자꾸 혼자 사는 힘을 길러야지...” <사례 19>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참 시간을 보람 있게 잘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사례 22>

“항상 규칙적인 생활하는거 그게 중요해” <사례 2>

⑤ 자식이 잘 컸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드높일 정도로 출세하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것의 내면적인 의미는 노인의 삶에 있어 과거, 현재, 미래의 생애연속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자녀가 잘 되었다는 것은 과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며, 자식을 통해 자신이 바라던 바가 대리성취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잘 됨으로써 현재 자신의 노후 대책이 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녀들이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져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존재가 미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뭐... 자식들 잘되는거지... 자식들이 잘돼야 내가 편하고 좋은거야... 그리고 노인네가 같이 재미나게 사는 것도 ... 복이지... 건강해야하지? 뭐... 늙어서 복은 자식들이 잘되는거야... 자식복 있으면 늙어서 호강한다잖아...” <사례 4>

“아이들이 잘 되는거.. 부부끼리 의좋게 살고 그 자식들이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잘되고.” <사례 19>

“가족들이 남들 사는만큼 살아야 해... 어디가서 멀

시당하고 기죽어있고 그러면 안된다고...” <사례 3>

“여자들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낳고... 그러는게 효라고. 그래야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러는거야. 그게 바로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라고.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면 국가는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사례 1>

“자식들이 잘 출세를 해야 좋아하는 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출세를 크게 남앞에 할만하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례 8>

“자식들이 부모의 이름을 높게 하는거... 그래서 아무개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사례 2>

“그래도 자식들 다 잘 키워서 자기 일들하고 결혼해서 손주들도 잘 넣고 잘사니까 더 바라면 내 욕심이지.” <사례 16>

2) 자식에게 투영된 삶

중층 노인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란 ‘자녀의 성공은 나의 노력이며 나의 꿈’, ‘자녀로 인해 부러움을 산다’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중층노인에게 있어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사회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속적인 유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미래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하였고, 현재에는 그러한 자식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과거 희생과 노력을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 보상을 받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층에서는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상층에서 보았듯이 자손들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① 자녀의 성공은 나의 노력이며 나의 꿈

중층의 경우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통한 성공적 노화를 중시하는 상층과 달리 자녀와 관련해서 또는 자녀를 통한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성공이 자신이 과거에 투자한 만큼 이루어진 자신의 노력이며 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면 나는 권력이 나 재물보다는 자식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어. 거기다가 내 인생을 바친거나 다름없어요 1남 2년 데 그들도 잘 했겠지만, 제가 제 아내와 같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키운 것만큼의 큰 별다른 성공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데까지는 자라줬어요” <사례 11>

“지금 현재 기대라기 보담도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오직 서울 온 게 내가 43살 때 왔거든? 67년도 그 온 목적은 역시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교육과정이 도시로 모두 모아놔야요 여기로 왔는데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젊음을 뭘지도 모르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보니깐 자기가 내간에는 교육은 시킨다고 다 시키요 대학은 서이 너이 시키고, 지금은 다들 좋은 자리 들어가 있고..”<사례 12>

“난 죽겠어도 자식들 위해서 부모들 다 사는 것이 제, 자식이 잘 되야..”<사례 27>

“성공은 내가 젊어서 고생해 돈 벌어가지고 자식 똑똑히 갈쳐가지고 자식 성공하고 그냥 부모한테 참 자기들이 잘 살고 그러면 성공이제..”<사례 9>

② 자녀로 인해 부러움을 산다

한편 중층노인들에게 있어 성공적 노화는 자녀들이 자신이 투자한 결과 잘 살면서 발전적인 삶을 살아줌으로써 본인의 노후의 삶이 타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대부분의 삶을 자녀에게 투자한 중층의 노인들에게 있어 자녀는 삶의 성취와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성공과 직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해지고 타인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노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성공이지 주위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자식들한테도 당당하고..”<사례 12>

“늙어서는 자식 자랑할거 밖에 더 있어.. 자식이 쟀 중요해.. 어딜가도 신난다고.. 우리 아들 뭐했다, 우리 딸이 어디에 시집갔다.. 그런 말들뿐이지 뭐... 그런 말 할때가 가장 부러워..”<사례 11>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그렇게들 그걸 부러워하더라고.. 요즘 어렵잖아.. 다들 힘들때 안정적인 직장 갖기가 어디 쉽겠어? 성공이 별거 있나.. 내 손주들도 공부잘하고 대학도 좋은데 가고.. 다들 자식 잘키웠다고 부러워해..”<사례 24>

“큰 아들은 고등학교 교장이야.. 둘째 아들은 저.. 음.. 뭐랄까.. 농림부, 농림부에 저~ 국장이야..”<사례 9>

“큰애는 서울대학 나왔고 둘째애는 이화대학 나왔고, 셋째딸애도 이화대학 나왔고, 큰 아들애는 지금 나와서 개인사업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첫째 딸은 남편을 따라서 YGN지사장의 부인으로 있어서 1남2녀를 잘 기르고 있어요 손녀애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셋째딸은 이화여대 나와서 기독교방송이나운서로 있다가 다시 뜻이 있어서 노인프로그램을 하다가 노인에게 관심이 있어서 복지대학

원 나와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지금은 인터넷가지고 자기 홈페이지 가지고 강의도 하고 멀지않아서 5월초순에 노인에 관한 책이 나옵니다.”<사례 11>

중층노인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 즉,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 모두 공부시키고 아무런 사고없이 건강하게 현재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성공적인 노화와 연결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층노인과 중층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에 있어 차이를 볼 수 있다. 중층노인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가 자녀와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층노인의 경우 과거, 현재, 미래의 생애연속적인 의미를 가지며, 자녀뿐만이 아닌 보다 확대된 생활영역과 관련 있으며, 자신과 타인 모두가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내 한 몸 추스르는 삶

하층 노인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란 ‘내 한 몸 추스르는 삶’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하층의 노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전 생애적인 차원에서 자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상층과 자녀에 대한 투자와 자녀의 성공을 통한 자신의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을 언급하는 중층 노인과 달리, 과거·현재·미래의 전생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아통합감이나 생애연속성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가 뚜렷하지 않으며, 인터뷰 결과 하층노인에 있어 성공적인 노화란 단지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럭저럭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제약속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중요할 뿐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인지하기에는 상황적인 여유가 없어 하층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상층이나 중층의 성공적인 노화에서 자녀의 중요성이 언급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하층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노부모와 자녀와의 상호교류적인 부분을 바라지도 않고, 자녀를 통한 성공이나 계승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과거에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나 계획을 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난 그거야. 난 이젠 70인데 내일 죽으면 어때 그건 상관없어 왜 자식들이 남들처럼 조금만 하꾸방이라도 내집들 가지고 살면서 남한테 셋방

살면서 구박 안받고 사는거 그 제일 원하 난 원 없어"<사례 29>

"내가 자식들한테 해 준것도 없는데 뭐... 자식들한테 뭘 바랄수 있나... 뭐... 미안하지..."<사례 32>

"그저 지들 편하게 살면되지..그게 좋은거야..나야 뭐 이제와서 달라질게 있겠어..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지... 자식들이 한번씩 찾아와주면 고맙고..."<사례 38>

"자식들이 내 속이나 썩이지 않으면 그게 효도하는거야. 밖에 나가서 성공은 무슨..사고만 안치고 잘살면 그만이지..."<사례 14>

"그저 새대통령 뽑았으니까 없는 사람 살피주고 정치만 잘하면 그것 뿐 더 이상 바랄거 없자"<사례 13>

"그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거는 긴병 안들고 오늘 저녁이라도 자다 죽었으면 그게 원이고 고것들 밖에 없어"<사례 35>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죽으면 되는 데..."<사례 3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연구자중심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는 다르게 노인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노인들의 삶의 맥락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이론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노화의 차원들을 밝히는데 머물러 있는데 반해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개념들을 확인하기 보다는 그러한 차원들이 노인의 지각 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져 나타나는지 주제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계층에 따라 이들이 겪는 맥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상층 노인의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란 '어딜 가도 떳떳하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욕심을 버린다',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낸다', '자식이 잘 컸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들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의 모습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적인 차원의 중요성,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고 능동적인 존재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둘째, 중층 노인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란 '자식의 성공은 나의 노력이며 나의 꿈', '자녀로 인해 부러움을 산다'로 언급할 수 있다. 중층 노인의 심리적 안녕을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 바로 자녀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노화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그로 인해 자녀들이 성공함

으로써 그 성공이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층 노인의 경우 이들이 살아온 맥락에서의 성공적인 노화란 '내 한 몸 추스르는 삶'으로 일축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은 그들이 속해있는 문화적인 맥락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계층적인 맥락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임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적인 맥락은 한국이라는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온 세대적인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의미는 사회물질적인 조건이나 제한 속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달라지지만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기대하는 바의 의미는 자녀와 관련된 면이 많았다. 상층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조건이 풍부하게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자식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면을 보이고 있고 중층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를 없애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인 가(家)의 개념에 입각하여 현 세대 한국 노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과거, 현재, 미래와의 시간적 연속성의 개념에 있어서도 자녀와의 관계성과 부모로서의 역할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자녀를 잘 키웠다는 부모로서의 도리, 현재 노후의 삶에서의 자식과의 관계, 미래의 자녀가 잘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 등 모든 것이 관계속에서의 자신을 성공적인 노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개념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적 제약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1925년부터 1934년 사이에 태어난 '해방전후 복구세대'이다.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상황 하에 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식민 경제 및 원조 경제를 경험하고, 농업중심의 절대빈곤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었다. 전후복구 세대로 대부분이 국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집단주의적,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있어, 연장자 존중이 철저하며 예절과 서열을 중시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생존 가치로서 물질주의를 지향한다. 남녀 간의 성역할에 관해서는 매우 고정적인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있다. 부를 가치롭게 여기며 직업의 귀천이 명확한 편이다. 부와 더불어 권력에 대한 가치도 매우 높게 매기는 경향이 있다. 무병장수하는 것과 아들을 중시한다. 이러한 세대적 특성이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삶의 맥락적인 개념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40명이며 이를 통한 연구결과를 한국적인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국적인 가치관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연결하는데 있어 유교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부족, 그리고 세대적인 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다른 cohort의 부재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의 문화와 언어 체계에 맞는 새로운 성공적인 노화 개념의 개발을 통하여 기존에 서구적인 가치관과 개념에 의존해 왔던 성공적인 노화 연구에서 탈피하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 있어 노후의 삶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 한국 노인들의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의미를 파악한 교육 프로그램이 형성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적인 개념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향후 미래사회에서 노인세대가 될 다음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연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역사적인 격동의 과정이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형성화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대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한국적인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접수 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9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2월 23일

【참 고 문 헌】

-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김태현(1998). *노년학*. 교문사.
- 박경란 · 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신경림(1998). 중년기 여성이 폐경으로 인한 몸의 변화에 관한 체험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2), 414-429.
- 통계청(2000). 노인가구(60세 이상) / 가계수지항목별 기본항목.
- 통계청(2002). 장래인구추계.
- 홍현방(2001).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ltes, P.(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The Gerontologist*, 33, 580-594.
- Chou, K. L., and Chi, I.(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Crosnoe, R., & Elder, Glen H., Jr.(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Lincoln, Y. & Guba, E.(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itchell, B. A.(2002). Successful Aging: Integrating Contemporary Ideas,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amily Relations*, 51(3), 283.
- Morse, J. M. & Field, P. A.(1997). *신경림 역(2000). 질적 연구 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Rowe, J., & Kahn, R.(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